

“민족과 함께해 온 호랑이 역사성 지켜졌으면”

50년간 호랑이 그린 오동섭 화백 초대전 29일부터 은암미술관 50여점 작품 대작 ‘한일월드컵 성공기원도’ 전시

정면을 응시하는 호랑이의 표정이 생생히 살아 있다. 포효하는 호랑이의 위세에 압도감을 느낀다. 세필로 그려낸 털은 한가닥 한가닥 움직이는 듯하고, 질주하는 듯한 움직임도 느껴진다. 호랑이의 야성을 느낄 수 있는 작품 한편으로 아기 호랑이를 감싸안은 자애로운 모습도 보인다.

송은(松濼) 오동섭(72) 화백의 화실에서 만난 호랑이 그림은 밀도있는 묘사로 생동감이 묻어났다.

2022년은 임인년(壬寅年) 호랑이해다. ‘검은 호랑이 해’로 불리는 새해를 맞아 50여년간 호랑이 그림을 그려온 오동섭 화백이 호랑이 그림으로 대규모 초대전을 갖는다. 오는 29일부터 광주 은암미술관에서 ‘한국 호랑이 6000년의 흔적’(2022년 1월28일까지)전을 여는 작가는 ‘호랑이 띠’로, 호랑이와 이래저래 인연이 많다.

오 화백은 6000년전의 울산 반구대 암각화(국보 285호)에서 한국 호랑이의 흔적을 찾았고, 그 주제에 맞춰 작품을 준비했다. 호랑이는 우리와 친숙한 동물이다. 강인함과 더불어, 민화를 통해 친근한 이미지도 함께 준다. 88올림픽 호돌이, 2002년 한일월드컵 호랑이 엠블럼, 평창동계올림픽 백호 등 매가 이벤트에서도 호랑이는 빠지지 않고 등장, 늘 우리와 함께했다.

50여점이 넘는 작품이 나오는 이번 전시는 신작이 주를 이룬다. 꼭 12년 전인 2010년 대전 ‘대전월드 특별전시실’에서 대규모 초대전을 열었던 오 화백은 그때부터 “2022년 호랑이해가 되면 광주에서 전시회를 열자” 마음을 먹고, 긴 시간을 두고 철저히 준비해왔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호랑이 그림과는 다른 그림을 보여줘야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그의 화폭에 등장하는 호랑이들이 생생히 살아있는 건 그의 지난했던 수고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할아버지가 화룻불 앞에서 들려주던 호랑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그는 유년시절부터 동물 그림을 곧잘 그려온 했다.

이후 호랑이는 그를 사로잡았고, 호랑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서울대공원을 비롯해 과천, 대전, 우치 동물원 등을 수없이 방문, 호랑이들을 관찰했다. 숲하게 스케치를 하고, 다양한 포즈를 카메라로 촬영했다. 동물원에서 살다시피하다 보니 자연스레 사육사 등과 친분이 생겨 아기 호랑이에게 젖을 먹여보기도 하고, 수술을 받는 아기 호랑이의 곁에서 직접 몸을 만져보기도 했다. 또 책을 통해 호랑이의 생태적 습성, 근육의 구조 등을 공부하는 등 이론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제는 머릿 속에 호랑이의 온갖 표정과 행동 양태



오는 29일부터 호랑이를 주제로 초대전을 개최하는 오동섭 화백이 화실에서 포즈를 취했다.

들이 다 담겨 있다.

무엇보다 탄탄한 데생 실력이 바탕이 된 그의 작품에서 생생히 살아있는 표정과 털의 묘사 등은 오랫동안 인물화, 초상화를 공부해온 결과다. 20년 넘게 초상화 학원을 운영하기도 했던 그는 젊은 시절 우암 이상원 선생을 사사하며 인물화 공부에 몰두했다.

오 화백은 재료에 연연치 않는다. 초창기에는 전통 한국화로, 화선지에 수묵과 채색 작업을 했지만 최근에는 유화물감으로 무게감을 더한다. 근작들은 호랑이의 위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유화물감을 함께 사용한다.

호랑이 그림의 배경으로는 실경산수 등 옛 모습과 함께 훈민정음, 독도, 무궁화, 태극기, 오륜마크 등 한국적인 알과 현대의 이미지들도 적극적으로 차용했다. 무등산 옛지도와 함께 묘사된 ‘옛날 무등산 호랑이’는 새끼 호랑이 두마리와 함께 한 아기 호랑이의 위용이 느껴지며, 호랑이의 수십가지 다채로운 표정을

한 화면에 담은 작품은 신비롭다.

이번 전시에는 예전에 선보였던 작품 중 유일하게 20여년 전 그린 ‘한일월드컵 성공기원도’(13.3×2m)가 나온다. 워낙 대작인 데다, 당시 한국이 4강에 진출하면서 화제가 됐던 작품이라, 이번 전시에서 다시 보여주고 싶었다.

“우리 민족과 함께해온 호랑이의 역사성은 이어지고, 지켜져야 합니다. 이번에 전시되는 호랑이 그림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호랑이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리얼한 표정의 호랑이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아 강인한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영광이 고향인 오 화백은 호랑이와 관련한 전시관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그런 공간이 생긴다면 자신의 그림을 모두, 기증하고 싶다고 말한다. 혼자서 이를 수 없는 꿈이라, 더 많은 이들이 함께 하길 바란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아이패드 디지털 드로잉 퍼포먼스

화순 경북미술문화원, 29일까지 레지던시 결과보고전



화순경북미술문화원에서 열고 있는 ‘Brain doodling’ 전 모습.

시대의 흐름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도구는 그리는 방식을 변화시켜왔다. 아이패드의 등장 역시, 예술가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을 가능케했다.

아이패드로 자유롭게 작업한 작품을 만드는 전시회가 열린다. 화순 경북미술문화원은 전남문화재단 2022 레지던시 지원사업결과보고전 ‘Brain doodling’을 오는 29일까지 진행한다. 전시 주제는 집단적 창의적 발상 기법인 ‘Brainstorming’에서 의미를 따왔다.

이번 레지던시에 참여한 3명의 작가는 아이패드를 이용해 각자만의 스타일로 자유롭게 디지털 낙서를 했다. 작가들은 디지털 방식의 여러 가능성과 새로운 방식의 그리기 등 일련의 과정을 서로 공유하며 즐겁게 그린 낙서를 전시하고 아이패드를 이용한 드로잉 퍼포먼스를 SNS채널에 공개했다.

박연숙 작가의 드로잉은 일상의 소소한 삶과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낙서하듯이 끄적인 작품이다. 하루 중 인상적인 모습이나 말들을 메모한 후 그리기도 하고, 운동하기 전 스트레칭 하듯 그리기도 전 손의 감각을 풀기 위해서 끄적이기도 한다. 때론 그냥 펜을 잡고 싶어 드로잉을 하기도 했다.

아란 작가의 ‘For rest’는 움직이는 이미지 위에 연속적인 형태를 그리는 방식의 작품으로, 작가에게 드로잉은 마음과 머리를 비우기 위한 과정이자 ‘쉼’이다.

이정은 작가는 평소 표현의 수단과 끄적임, 에스키스로 활용하던 드로잉을 확장시킨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아이패드 드로잉은 평소 하지 않는 스타일에 마음껏 도전하게 해주었고, 복제, 색의 변화가 쉬운 점을 활용해 다채로운 변용을 시도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평범한 사람들, 투박한 보통의 삶

윤성민 개인전, 28일~2022년 1월11일 소아르 갤러리

윤성민 작가 첫번째 개인전이 28일부터 2022년 1월 11일까지 화순군 소아르 갤러리에서 열린다.

‘Rustic Normal Life(투박한 보통의 삶)’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2019년부터 진행해온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자아성찰’ 연작들과 올해 작업한 ‘투박한 보통의 삶’ 작업들로 구성됐다.

윤 작가는 화려한 세상 속에 감춰진 병든 개인의 문제를 조명, 해결책을 모색하고 평범했던 모든 이들의 ‘보통의 삶’으로의 귀환을 꿈꾸며 작업해왔다.

그는 유년시절 ‘스님 엄마’, ‘템플 스테이’ 등 절에 관한 추억이 많았다. 이런 기억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졌지만 그의 무의식 속에 남아 창작하는 행위로 표출되며 자신의 삶에 초점을 맞춘 ‘자아성찰’ 시리즈로 이어졌다.

‘투박한 보통의 삶’ 시리즈는 작가 개인의 문제를 공동체의 문제로 확장시킨 작품이다. 현실을 위해 개인의 이상을 양보하는 모습은 무채색으로 표현했으며 개인과 대비되는 공동체 사회는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화면의 구조나 소재, 색감 등을 통해 화려하게 표현했다.

윤 작가는 조선대 미술대학에서 회화를



‘희망’

전공했으며 동대학원 미술학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 광주시 미술대전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으며 ‘2020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대표작가 및 기획 총괄, 청년 예술가 협동조합 ‘예술마중 협동조합’ 대표를 맡고 있다. 작가 유튜브 채널(https://youtu.be/IQANvUeIspo)를 통해 내년 1월 31일까지 온라인 전시도 진행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세상을 밝히는 별’

27일 ‘김원중의 달거리’ 올해 마지막 온라인 공연

생명과 평화를 노래하는 ‘빵 만드는 공연 김원중의 달거리’(이하 ‘김원중의 달거리’)가 올해 마지막 공연을 펼친다. ‘세상을 밝히는 별’을 주제로 꾸며지는 이번 공연은 27일 오후 7시30분 ‘김원중의 달거리’ 유튜브-페이스북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팬데믹 시대, 평화와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전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공연에는 기후위기 극복 문화예술 프로젝트 ‘되살림 콘서트’ 팀을 초청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버려진 플라스틱과 페인트통 등 폐품을 이용해 악기를 만들고,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변화를 이끌기 위해 캠페인을 펼쳤던 팀으로 친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 초대손님으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광주시민을 향한 발표명령을 거부하며 군사정권에 맞선 민주경찰 안병하 치안감의 아들 안호재와 광주의 참상을 전하는데 기여한 영화 택시운전사의 주인공 김



‘빵 만드는 공연 김원중의 달거리’ 공연이 27일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사진은 ‘되살림 콘서트’ 팀 모습.

사복 기사의 아들 김승필이 무대에 올라 민주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밖에 가수 김원중, 프롤로그인밴드, 우물안개구리, 통통프로젝트 등이 참여한다. 문의 010-3670-5802.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